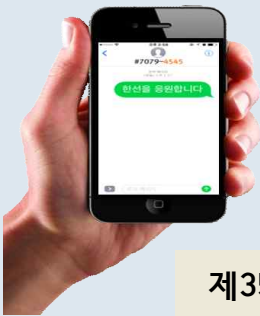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역사 속의 대한민국, 미래의 대한민국
[발제자] 박종인 작가, 조선일보 선임기자
[일 시] 2021년 3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58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참패한 후 양무운동이라는 근대화 정책을 펼쳤다. 아편전쟁이 발발한 후 조선은 청에 사신을 보내 아편전쟁이 조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1845년 사신은 돌아와 無事矣(무사의:아무 일 없다)라고 보고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조선은 근대화되지 못한 채 고여 있었다. 그 사이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했다.

■ 고종은 노론과 여흥민씨의 척족들을 자기 정치의 기반으로 삼았다. 결국 왕과 신하가 공생하는 공생정권이 됨으로써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실종되었다. 고종 정권은 막강한 전제군주정이 되었고 이후 반권력적 정책과 담론은 탄압당했다. 그 결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성장할 기반이 생성되지 못했다. 근대정신은 부국강병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근대화였지만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100년 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떨까? 우리는 리더에게, 리더를 감시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고있는 국민에게 질문을 던진다. 시대정신을 따르고 있는가? 시스템이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가? 시스템에 의해 부국강병과 국민 복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 구한말에서 배우는 대한민국의 미래

- ◆ 역사를 알아보는 기준은 리더십과 시대정신이다. 역사를 만드는 건 민중이다. 그러나 그 역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리더이다. 당대의 시대정신이 그 방향을 제공한다. 1864년부터 1907년을 발제자는 고종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는 시대정신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전 지구적 격변기이다. 국제질서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고 사회질서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했다. 사회체제는 봉건에서 근대로 바뀌었다.
- ◆ 1840년에 발발된 아편전쟁은 동아시아에 근대화를 유발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참패한 후 양무운동이라는 근대화 정책을 펼쳤다. 아편전쟁이 발발한 후 조선은 청에 사신을 보내 아편전쟁이 조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1845년 사신은 돌아와 無事矣(무사의:아무 일 없다)라고 보고했다. 청은 몇 개의 항구만 개방했을 뿐 황제국이 아무 일 없었으므로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조선은 근대화되지 못한 채 고여있었다. 그사이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했다.

가. 청·일 전쟁

- ◆ 1894년, 조선의 땅에서 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났다. 청일전쟁은 도덕률이 지배했던 천하세계가 사라지고 오로지 생존법칙, 적자생존 법칙만이 근대세계의 길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사건이었다. 청일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일전쟁을 종료시킨 사람들도 근대기술을 습득했던 각국의 유학파였다. 부국강병만이 자신의 나라와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근대정신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다.

- ◆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동아시아의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스코틀랜드의 위햄은 ‘19세기 말부터 조선은 근대정신과 근대경쟁에 합류하지 못해 제국주의 양허업자들의 행복한 사냥터로 변했다.’고 했다. 다른 나라의 권력 집단들이 부국강병을 통해, 근대화 작업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던 사이에 조선은 그 발전과정을 완전 방기해버리고 자신들의 권력만 추구했던 결과였다.

나. 재상정치의 붕괴

- ◆ 조선의 건국이념은 신권과 왕권이 조화된 재상정치의나라였다. 신권과 왕권이 상호 견제를 통해 나라를 이끌었다. 정도전은 ‘正己格君[정이격군]: 자신을 바르게 한 후 임금을 바르게 한다.’라고 했다.
- ◆ 고종은 1873년 친정을 선언했다. 공식적으로는 그 이전에 조대비의 섭정이 끝났었지만, 실질적인 친정은 1873년에 이루어졌다. 이때 고종은 노론과 여흥민씨의 척족들을 자기 정치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정도전이 꿈꾼 재상정치가 사라지고 왕과 신하가 공생하는 공생정권이 되어버렸다. 신권이 왕권과 융합해버림으로써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무너져버렸다.

다. 시민사회 발아를 막은 고종의 전제군주정

- ◆ 재상정치가 붕괴되면서 ‘리더’ 혹은 ‘리더 집단’에 의한 통치가 시작됐다. 제도가 붕괴돼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권력을 견제하던 세력들이 와해됐다. 시대의 추세였던 입헌군주정과 공화정은 거부되었다. 고종 정권은 막강한 전제군주정이 되었다. 반권력적 정책과 담론은 탄압당했다. 그 결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성장할 기반이 생성되지 못했다. 공동체는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나라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를 뜻한다.
- ◆ 시민사회 공동체는 없었지만, 정권에 빌붙은 변질된 공동체는 있었다. 이 공동체는 고종 정권의 권력에 기반해 삼정문란을 일으켰다. 삼정문란은 급여를 받지 못한 군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킨 원인이 됐고 이 모순들이 동학혁명으로 폭발했다. 고종 정권은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였고 이에 맞서 일본군이 파병되면서 청일전쟁이 터졌다. 이런 환경에서 공동체는 발아될 여지가 없었다.

◆ 근대화 시대 흐름과 정반대의 [대한제국] 최초 헌법

- ◆ 근대정신은 부국강병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대정신이였다. 하지만 조선은 근대화를 통해 형성되고 성장시켜

야 했던 공동체가 실종되면서 근대화의 대상자체가 없었다. 그 상징적인 법제가 1898년 고종정권이 만든 <대한국국제>라는 헌법이다. 이는 9개 조로 되어있다. 첫 번째 조항은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2조부터 9조까지는 모두 전제정치 주체인 대황제의 무한한 권력을 규정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규정한 이 헌법은 시대적 흐름인 근대화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었던 제도였다.

- ◆ 대한제국이 나름의 근대와 개혁을 지향했던 국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개혁의 원초적인 요소인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무의미한 개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96년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추정한 예산을 보면, 학부예산은 총예산의 2%, 황실비는 7.9%였다. 1903년에는 학부예산은 총예산의 1.5%로 감소했고 황실비는 9.3%로 증가했다. 19세기 말은 세계 각국이 자신들의 권한을 제한하며 근대정신을 받아들였던 시기이다. 대한제국의 행보는 과연 근대정신과 합치된 것일까?
- ◆ 고종정권에서 국가 통치행위가 존재했는가? 국가 리더집단이 존재했는가? 리더집단에게 국가의 모습이란 있거나 했는가? 권력은 부패했고 왕도정치는 사라졌다. 근대적인 의미의 견제장치도 없었다. 왕권과 신권이 융합되면서 왕권을 견제할 시스템이 무너졌고 권력집단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인 채무의식이 부재했다. 주체적으로 국가를 끌고 가야 할 사회공동체가 발아조차 되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 대한제국은 근대화에서 낙오되고 멸망했다.
- ◆ 매천 황현이 나라 꼴을 보고 맹자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나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친 후 남이 친다고 하였다. 아, 슬프도다!(國心自伐而後人伐之, 噫)’ 그 당시 대한제국을 바라봤던 개화파, 외국의 지식인들이 바라봤던 대한제국의 망국 풍경이다. 이후 100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어떨까? 우리는 리더에게, 리더를 감시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에게 질문을 던진다. 시대정신을 따르고 있는가? 시스템이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가? 시스템에 의해 부국강병과 국민 복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